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위형, 안성진, 추현희 이상 3명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 (10/10) 청소담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0/11) 주일간식담당은 엘리 목장(신경미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10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가 걸어오다>, <일상의 분별> 이상 2권입니다.
6. 10월 '하늘문만나' 책자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예배기도(2부)		인도자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위형, 안성진, 추현희)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 \*성시교독 ..... 교독문 53번(시 121:1-8) ..... 다 같 이
- \*경배찬송 ..... 37장(통 37장) ..... 다 같 이
- \*참회기도 ..... 다 같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 391장(통 446장) ..... 다 같 이
- 대표 기도 ..... 인 도 자

봉헌과 말씀

- 성경봉독 ..... 왕상 19:1-14 .....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 봉헌기도 ..... 인 도 자
- 말씀선포 ..... '신앙의 난국을 극복하자' .....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 교회소식 ..... 인 도 자
- \*결단송 ..... 620장 ..... 다 같 이
- \*축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 허영진 목사  
 이번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 허영진 목사  
 이번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 허영진 목사  
 (월~금) 이번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단감 아닌 뽕은 감

철길 따라 자리 잡은 마을 중간에 너른 마당과 과실수를 가진 집이 있었다. 과실수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제법 당도 높을 아름다리 큰 단감나무다. 물론 그 좌우로 몇 그루 그다지 관심 받지 못하는 뽕은 감나무도 있었다. 먹 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가을이 되면 그 집 단감나무는 마을 아이들의 서리 표적이 되었다. 이래저래 얻을 게 없었던지 그 집 주인 아저씨는 단감나무 주위에다 철조망을 둘렀다. 물론 서리만을 통해서 그 집 단감을 먹는 건 아니었다. 가끔 아저씨가 끝을 가른 장대를 들고서 감을 딸 때 그곳을 지나게 되면 굳이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크게 했다. 아저씨는 하나를 주기도 하고 여럿 달린 가지를 넘겨주기도 했다. 겉옷에다 쓱쓱 닦고서 한 입 베어 물면 처음에 조금 뽕긴 해도 계속 씹다보면 그렇게 단맛이 날 수가 없다.

감이 익을 무렵이 되었는데 나무 아래 아무도 없으면 골목길로 드나드는 길이 서운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시멘트나 철망 담장이 아니었다. 수숫대이거나 판자 나무거나 잘하면 대나무였다. 물론 돌담도 있었고, 좀 산다는 집은 시멘트 담장을 두르기도 했다. 수숫대나 대나무 울타리는 손이 많이 갔다. 명절이 돌아오면 삭은 것을 뽑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연례행사였다. 촘촘히 한다 해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는 다 알았다. 열기설기한 곳으로 들여다보면 밥을 먹고 있는지, 명절 쇠러 누가 찾아 왔는지, 감을 따는지, 흠이 볼을 빨아 넣었는지, 재잘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감나무 있는 집이 흔하지 않았다. 단감나무는 더 귀했다. 그러니 가을 초입에 홀대 받던 뽕은 감도 나중 소금에 절여서 뽕은맛을 뽕 다음 먹거나, 그도 아니면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홍시를 만들어 먹었다. 그렇다보니 단감은 우리 차지엔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뽕은 감이 나중 더 귀하신 몸(?)이 되었다. 한 겨울,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라 장독대 안에다 고이 보관해둔 홍시를 저녁식사 후에 꺼내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다들 반시 상태로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 여름까지 홍시를 먹기도 한다. 그때 그 맛을 추억해서다. 추석연휴를 보내고 있다. 눈에 좋게 보이거나, 맛이 좋다고 선택 모든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감 아닌, 뽕은 감이라도 지나고 보면 오랜 동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깊어 가는 가을, 신앙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산다면 그럼 된 것이다.

Written by 허영진